

메모리 가격 꺾인다고?... “2분기도 초호황 유지”

오픈AI 데이터센터 확장 철회 등 이유로 美서 하락설 중고 모듈제품만 가격 급락 징후... 신제품은 안정세 유지 D램 기준 DDR5 1% 안팎 값 하락... 낸드플래시는 상승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아직 견고해 가격 또한 유지될 전망이다. 주요 메모리 반도체 공급 기업들이 2분기에도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계속 상승하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최근 여러 약재들이 겹치며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월 미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오픈AI가 미국 정부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미국 텍사스주 에빌린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을 철회했다.

여기에 중국을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감소하는 것 또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 하락 요인으로 꼽혔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며 소비자들이 전자제품 구입을 줄이고 이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 또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화창베이를 비롯한 주요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DDR5 가격이 일주일 만에 약 30% 하락하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2월 21만8000원까지 올랐던 삼성전자가 주가는 19만 원대에 머물고 있으며 ‘100만 닉스’를 달성했던 SK하이닉스 주가 또한 90만 원 아래에 형성됐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메모리 가격의 급락은 중고 모듈 제품에 한정되며 신제품 모듈의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고해 가격이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노트북·조립PC 등 안내판이 걸려 있다.

이종원 기자

D램 익스체인지 기준 DDR5 가격 하락은 1% 안팎에 그치고 있다. 또한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승우·박재환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D램 가격이 절대로 편안한 수준은

아니지만 메모리 업체들의 펀더멘털에 우려스러운 변화가 있지는 않다”라며 “제품 가격 최고점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는 이미 밸류에이션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죽기 약세의 가장 큰 지

분은 호르무즈 불안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인텔은 2월과 3월 CPU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5월에도 추가 가격 인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이 AI 데이터센터

터에 사용되는 CPU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아직 견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5일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D램 가격을 1분기 대비 약 30% 높은 수준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분기 D램 가격 100% 인상에 더해 다시 30%를 인상하며 지난해와 비교해 260%가 오른 것이다.

미국 IT·하드웨어 전문 뉴스 웹사이트 Wccftech는 삼성전자가 D램 가격을 인상에 따라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또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Wccftech는 “현재 구형 DDR4 칩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만 이는 시스템적인 수요 붕괴보다는 사재기된 재고를 처분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 작용에 더 가깝다”라며 “3월 말 기준 PC D램 평균 고정 계약 가격은 전월 대비 변동이 없으며 LPDDR5 계약 가격은 2027년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韓 여행객 “짧게 자주 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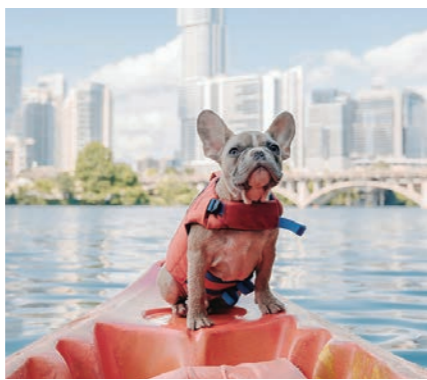
글로벌 평균 0.6회 많이 여행 숙소 선택 시 청결 최우선 고려

한국 여행객과 글로벌 여행객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 여행객은 여행을 더 자주 떠나며 숙소 선택 시 청결과 서비스 등 기본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행 전 정보 탐색과 계획에도 적극적이었다.

부킹닷컴은 전 세계 34개국 3만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글로벌 여행 트렌드 조사’를 통해 한국 여행객의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한국 여행객의 국내 여행 횟수는 평균 3.14회로 글로벌 평균(2.53회)을 상회했으며 아시아 지역 여행 역시 평균 1.95회로 글로벌 평균(1.38회)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한 번의 장기 여행보다 여러 번 나눠 떠나는 ‘짧고 자주’ 형태의 여행 패턴이 한



부킹닷컴은 34개국 3만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여행 트렌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킹닷컴

국에서 더욱 일반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행 경험을 분산시키며 다양한 목적지와 숙소를 경험하려는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여행 동반 유형에서는 가족과 함께 여행 한다는 응답이 50%로 글로벌 평균(48%)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연인과의 여행은 36%로 글로벌 평균(43%)보다 낮았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한 경험은 10%로 글로벌 평균(7%)을 웃돌았다.

숙소 선택 시 ‘청결’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은 72%로 글로벌 평균(62%)을 크게 상회했다. 고객 서비스 역시 66%로 글로벌 평균(63%)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주요 고려 요소로 꼽혔다.

글로벌 기준 여행 계획 과정을 즐긴다는 응답은 73%였으며 한국 역시 70%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여행 중 AI를 활용한 경험은 글로벌 50%, 한국 69%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한국 여행객은 여행 전 단계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하는 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구성, 숙소 탐색, 혜택 비교 등 계획 과정 전반에 관여하며, 여행 준비 과정 자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토드 레이시 부킹닷컴 매니저는 “한국 여행객은 여행을 자주 떠나는 만큼 숙소 선택에서도 보다 실질적이고 신뢰도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

삼천당제약이 전인석 대표의 2500억 원 규모 지분 처분 계획을 철회했다.

삼천당제약은 전 대표가 지난달 24일 제출했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를 철회했다고 6일 공시했다.

거래계획 보고일 전 최종 증가 대비 주가가 30%를 초과해 변동한 시장상황 변경이 철회사유다. 사유의 발생일자는 3일이다.

당초 전인석대표는 4월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보통주 26만5700주를 처분키로 했다고 3월24일 공시한 바 있다. 처분 단가는 주당 94만1000원, 총 거래금액은 2500억2370만 원 규모로 증여세 등 세금 납부 재원 마련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철회로 실제 시장에 출회된 물량은 없다. 공시상 철회 시점까지 체결 또는 결제된 거래내역은 없는 상태다.

시장에서는 해당 매각 계획에 대해 주

30%이상 주가 급변 사유 주주 가치 방어로 선회키로



삼천당제약이 전인석 대표의 2500억 원 규모 지분 처분 계획을 철회했다. 삼천당제약

가 하락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삼천당제약 주가는 거래계획 보고 이후 톨러코스트 흐름을 보였다. 전 대표의 지분 매각 계획 공개 뒤 장중 120만 원선을 넘겨졌다. 4월3일 종가는 64만8000원까지 떨어졌다. 6일 장 초반에는 매각 철회 공시 영향으로 소폭 반등했다.

주가 급변의 배경에는 미국 제약사와의 계약 구조와 공시 내용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자리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 등을 이유로 삼천당제약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상태다.

삼천당제약은 이날 오후 간담회를 열어 S-PASS 관련 의혹과 미국 계약의 실제, 블록딜 취소 경위 등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경준 기자 gju@skyedaily.com

모든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운명적 사랑에 대한 서사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모스크바
라라의 랩소디
맹세희 지음

화제의 신간

58세 신예 작가리는 독특한 이력의 맹세희 첫 소설

인생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변증법이다.
- 에필로그 중에서

인생과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모든 남과여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운명적 사랑의 서사시를 그려내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맹세희 지음 | 272쪽 | 17,800원 | 양문출판사

누구나 꿈꾸면서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성장소설이면서
아픈 시대를 살아낸 청춘들에 대한 시대소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모스크바
라라의 랩소디